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 기법 연구*

김문희**

<차례>

1. 머리말
2.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의 양상
 - 1)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
 - 2)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
 - 3) 해결과 각성의 촉매 서사
 - 4) 해소와 웃음의 촉매 서사
3.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 기법의 기능과 효과
 - 1) 서사 구성적 측면의 기능과 효과
 - 2) 독서 심리적 측면의 기능과 효과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 기법의 기능과 효과를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문장편소설의 하위 유형인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유씨삼대륙>,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륙>, <성현공숙렬기>, <임씨삼대륙>을 대상으로 하여 옛보기와 옛듣기의 서사 양상, 기능과 효과를 논의하였다. 먼저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의 양상을 상황, 주체, 대상, 그 결과를 중심으로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 해결과 각성의 촉매 서사, 해소와 웃음의 촉매 서사로 나누고 그것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 기법은 서사 구성적 측면과 독서 심리적 측면에서 일정한 기능과 효과를 지닌다. 우선 서사 구성적 측면에서는 서사 진행 속도를 가속하기도 하고, 감속하며 서사 구성을 다각화하고

* 본 연구는 2023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진성애교양대학 조교수

서사를 매듭짓는 효과를 발휘한다. 더불어 장편소설의 복잡한 사건 구성을 쉽게 구성하면서도 개연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드러내기도 한다. 엿보기와 엿듣기 서사 기법은 독자의 독서 심리적 측면에서도 주체의 애정과 인정 욕망을 허구적으로 용인하면서 독자의 욕망도 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독자는 주체의 눈과 귀를 통해 허구 속 인물의 미모, 은밀한 대화와 행동, 부부 침실을 엿보거나 엿들으면서 절시(竊視)와 도청(盜聽)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유희적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기능과 효과로 인해 국문장편소설에서 엿보기와 엿듣기 기법은 지속적으로 활용되었고, 현대 TV 드라마에서도 국문장편소설의 엿보기와 엿듣기 기법을 이어받아 활용하고 있다.

□ 국문장편소설, 엿보기, 엿듣기, 촉매 서사, 가속, 감속, 다각화, 종결화, 개연성, 욕망 투사, 호기심, 유희성

1. 머리말

국문장편소설에서 엿보기와 엿듣기는 널리 활용되는 서사 기법이다. 엿보기와 엿듣기 서사는 핵심적인 사건과 메인 스토리를 추동하는 단초나 촉매가 되면서 국문장편소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에서 엿보기나 엿듣기 서사는 핵심 사건과 메인 스토리를 도와주는 주변적인 서사로 간주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문장편소설 연구에서는 주로 작품마다 반복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단위담, 모티프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고 이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결과를 축적했지만 엿보기와 엿듣기 같은 서사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영역이다.

바르트와 채트먼은 서사체의 사건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바르트는 핵(noyau)과 촉매(catalyst)로, 채트먼은 핵 사건(kernel)과 위성(satellite)¹⁾으로 양분하였다. 핵과 핵 사건이 사건의 요체이고 뼈대를 형성하는

1)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6, 139쪽. S.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주요 사건이라면, 촉매와 위성은 핵과 핵 사건의 주변을 채우며 사건의 확대, 확장, 지속, 지연²⁾시키는 주변 사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는 촉매와 위성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옛보기와 옛듣기는 그것 자체로 핵심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국문장편소설에서 중요한 기능과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지금까지 고전소설이나 서사문학을 대상으로 하여 옛보기나 옛듣기 기법을 연구한 논문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애정전기소설인 〈이생규장전〉을 대상으로 ‘규장(窺牆)’과 ‘유장(踰牆)’의 환상성과 현실적 의미를 논의한 연구³⁾가 있고, 판소리계 소설과 풍속화의 공통점을 ‘옛보는 시선’으로 파악하고 두 장르의 재현 윤리를 논의한 연구⁴⁾가 있다. 또한 〈서재야회록〉을 대상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구현하는 양상으로 옛보기와 옛듣기가 활용되었고 이를 통해 〈서재야회록〉의 문예적 특질을 연구⁵⁾한 경우가 있다. 또한 성(性) 소화집인 〈어면순〉을 대상으로 옛보기와 옛듣기가 활용되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성(性)이 물신화되고 배제되며 남성의 성욕과 쾌락이 존재하게 된다는 연구⁶⁾도 있다.

이처럼 고전 서사문학에서 옛보기와 옛듣기 기법에 대한 연구는 개별 작품에 한정되거나 부분적인 기법 논의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문장편소설 연구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옛듣기와 옛보기 서사 기법에

푸른사상, 2003, 63~66쪽.

- 2) S.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 지성사, 1994, 32쪽.
- 3) 박일용,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서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5~35쪽.
- 4) 김현주, 「‘옛보는 시선’과 재현윤리의 문제-〈단오풍정〉과 판소리 사설의 상관성을 통한 해석-」, 『시학과 언어학』 22, 시학과언어학회, 2012, 153~173쪽.
- 5) 김현화, 「〈서재야회록〉의 분위기 구현 양상과 문예적 특질」, 『반교어문학연구』 36, 반교어문학회, 2014, 267~291쪽.
- 6) 김준희, 「성(性) 소화(笑話)에 나타난 ‘옛보기’와 ‘옛듣기’-『어면순』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6, 한국여성문학회, 2022, 134~158쪽.

눈을 돌려보려고 한다. 엿보기와 엿듣기 서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고전소설의 엿보기와 엿듣기 서사 기법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국문장편소설의 하위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유씨삼대록〉,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 〈임씨삼대록〉을 대상으로 엿보기와 엿듣기 서사의 양상을 분석하고, 엿보기와 엿듣기가 어떤 기능과 효과를 드러내는지를 탐구하여 국문장편소설의 엿보기와 엿듣기 서사 기법의 의의를 논의하려고 한다.

2. 국문장편소설의 ‘엿보기’와 ‘엿듣기’ 서사의 양상

국문장편소설에서 엿보기와 엿듣기는 주체가 몰래 다른 인물의 모습, 행동, 말을 보고 듣는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의 엿보기, 엿듣기는 공통적으로 엿보고, 엿듣는 주체와 대상이 있으며, 엿보고 엿듣는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서사이다. 엿보기와 엿듣기가 축매가 되어 주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엿보기와 엿듣기는 주요 사건을 만드는 축매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에서 엿보기와 엿듣기는 ‘엿보다’, ‘몰래 보다’, ‘숨어서 보다’, ‘엿듣다’, ‘몰래 듣다’, ‘숨어서 듣다’, ‘엿드려 듣다’ 등의 서술표지가 나타나며 엿보기와 엿듣기의 주체, 대상, 결과의 형태가 비슷하게 구성된다. 곧 국문장편소설의 작가가 유사한 패턴 속에서 엿

7) 대상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조혜란 외 역주, 『소현성록』 1~4, 소명출판, 2010; 김기동 편, 〈유효공선행록〉,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5~16, 아세아문화사, 1982; 한길연 외 역주, 『유씨삼대록』 1~4, 소명출판, 2010; 김문희 외 역주, 『현몽쌍룡기』 1~3, 소명출판, 2010; 김문희 외 역주, 『조씨삼대록』 1~5, 소명출판, 2010; 김기동 편, 〈성현공숙렬기〉, 『한국고전소설총서』 1~3, 태학사, 1983; 김지영 외 역주, 『임씨삼대록』 1~5, 소명출판, 2010.

보기와 옛듣기 서사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문장편소설에 편재해있는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는 상황, 주체, 대상, 그 결과에 따라 대략 네 가지 양상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 해결과 각성의 촉매 서사, 해소와 웃음의 촉매 서사가 그것이다.

1) 매혹과 상사(想思)의 촉매 서사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는 주체가 몰래 숨어서 혹은 우연한 기회에 대상 인물을 옛보고 그 결과, 대상에게 매혹되거나 상사병을 앓게 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국문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작품명	옛보기/옛듣기 상황	주체	대상	결과
〈성현공숙렬기〉 4권	반연화가 숙모인 여부인을 보러왔다가 임희린의 풍모를 옛봄	반연화	임희린의 모습	반연화가 임희린에게 매혹되어 임희린에게 겁탈의 누명을 씌워 임희린의 첩이 됨.
〈조씨삼대록〉 3권	범소저가 범부를 방문한 조기현을 몰래 옛봄.	범소저	조기현의 모습	범소저가 조기현을 보고 상사병이 나자 범공이 사훈은지를 청해 범소저가 조기현의 처가 됨.
〈조씨삼대록〉 22권	출거된 괄씨가 유참정집의 외당에서 몰래 소경수를 옛봄.	괄씨	소경수의 모습	괄씨가 소경수에게 반해 양귀비를 움직여 사훈은지로 소경수의 세 번째 처가 됨.
〈성현공숙렬기〉 14권	임유린이 목지부의 집에서 풍소저의 모습을 옛봄	임유린	풍소저의 모습	임유린이 풍소저에게 반해 목지부의 환심을 사고 풍소저를 아내로 삼음.
〈임씨삼대록〉 25권	환옥이 임부 유화당의 창틈으로 괄교란을 옛봄	환옥	괄교란의 모습	환옥이 괄교란에게 욕정을 느껴 괄교란과 간통함.
〈임씨삼대록〉 40권	양경운이 높은 누각에서 임부를 옛보다 양소혜의 모습을 보게 됨	양경운	임소혜의 모습	양경운이 임소저에게 구애의 편지를 보내다 발각되어 양부에서 양경운과 임소혜를 혼인시킴.

〈소현성록〉 5권	소운성이 형삼정집 내당의 형소저를 엿보게 됨.	소운성	형소저의 모습	소운성이 형소저에게 반해 석참정을 움직여 형소저와 혼인하게 됨.
〈조씨삼대록〉 4권	양인광이 조부의 선월정에서 창틈으로 조월염을 엿봄.	양인광	조월염의 모습	양인광이 조월염의 처소로 들어가 조월염을 희롱하고 조월염과 혼인함.
〈조씨삼대록〉 25권	조봉현이 석부의 미화당 창틈으로 석소저의 잠자는 모습을 엿봄	조봉현	석소저의 모습	조봉현이 석소저의 처소로 들어가 석소저를 희롱하고 석소저와 혼인함.
〈조씨삼대록〉 21권	소경수가 조부의 설화각에서 조자염을 엿봄.	소경수	조자염의 모습	소경수가 조자염을 엿보고 병이 들자 소부에서 청혼해 소경수와 조자염이 혼인함.

위에서 정리한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에서 엿보는 주체는 악인형 여성 인물/악인형 남성 인물과 영웅호걸형 남성 인물, 그리고 〈조씨삼대록〉의 군자형 인물인 소경수이다.

악인형 여성 인물은 풍채와 외모가 뛰어난 남성 인물을 엿보고 매혹되어 남성 인물의 처나 첩이 되려고 한다. 〈성현공숙렬기〉의 변연화는 임희린을 엿보고 매혹되어 임희린이 자신을 겁탈한다는 계락을 만들어 임희린의 첩이 된다. 〈조씨삼대록〉의 범소저는 조기현을 엿보고 상사병이 나고 사혼은 지로 조기현의 처가 되며, 광씨는 소경수를 엿보고 양귀비를 움직여 사혼은 지로 소경수의 처가 된다. 악인형 남성 인물은 아름다운 여성 인물을 엿보고 이들을 아내로 맞거나, 합의 하에 간통한다. 〈임씨삼대록〉의 임유린은 풍소저를 엿보고 목지부의 환심을 사서 풍소저와 혼인을 하게 되고, 환옥은 악인형 여성 인물인 곽교란을 엿보고 욕정을 느껴 간통한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영웅호걸형 남성 인물들도 숙녀형 여성 인물을 엿보고 매혹되어 상사병이 들거나 애정 욕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임씨삼대록〉의 양경운은 임소혜를 엿보고 편지로 구애하다 발각되어 임소혜와 혼인하고, 〈소현성록〉의 소운성은 형소저를 엿보고 반해 석참정을 움직여 형소저와 혼인하게 된다. 〈조씨삼대록〉의 양인광은 조월염을 엿보

고 매혹되어 조월염 처소에 들어가 조월염을 희롱하고 결국 혼인에 이르고, <조씨삼대록>의 조봉현 역시 석소저를 옛보고 양인광과 같은 방식으로 석소저와 혼인하게 된다.

이처럼 매혹과 상사의 촉매로써 옛보기는 혼인이나 연인이 되는 주요 사건을 이끌게 된다. 그런데 옛보기로 이루어진 혼인이나 연인 되기는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 악인형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은 애정을 성취한 후 본격적으로 계락을 만들어 여성 주인공과 선인형 인물을 제거하려고 하며, 영웅호걸형 인물의 아내가 된 여성들은 혼인을 기점으로 남편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남편의 다른 처첩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건이 예비되기 때문이다. 결국 매혹과 상사의 촉매로써 옛보기는 악인의 음모와 계략, 영웅호걸형 인물의 오해라는 주요 사건으로 확대되게 하고 인물의 고난과 갈등을 만드는 발단부의 주변 사건으로 구성된다.

한편으로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에서 옛보는 주체는 애정을 갈구하는 인물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이다. 악인형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 영웅호걸형 남성 인물은 자기 욕망에 따라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사대부가 자녀가 내당에서 외당을, 외당에서 내당을, 혹은 장막, 창틈, 문틈에서 이성을 옛보고 구애하는 행위는 당대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의 옛보기는 이런 사회적 금지를 무화하고 이성을 갈구하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다. 또한 옛보기 이후 주체는 이성에게 매혹되어 상사병이 나고 자신의 욕망을 직접 해결하거나 주변인을 움직여 자신의 애정 욕구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체의 옛보기는 문제적이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는 대상의 이름다움에 매료된 주체의 시각과 그에 따른 욕망을 상세하게 서술하기 때문이다.

2)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는 악인형 여성 인물이 주인공과 상대방이 나누는 대화를 엿보거나 엿듣고 음모를 만들거나, 영웅호걸형 인물이 엿보기와 엿듣기를 통해 오해를 하는 것이다. 음모와 계약의 촉매 서사는 국문장편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각 작품에서 나타나는 서사 양상은 다음처럼 정리해볼 수 있다.

작품명	엿보기/엿듣기 상황	주체	대상	결과
〈임씨삼대록〉 11권	옥선군주가 임창홍과 설소저를 시기하여 밤마다 부부의 처소를 엿봄.	옥선군주	임창홍과 설소저의 대화와 동침	옥선군주가 설소저에게 질투를 느껴 능운법사와 공모하여 설소저를 없애려고 함.
〈임씨삼대록〉 22권	남연랑이 파리가 되어 괄교란의 침소에서 임천홍에게 시집가고 싶어 하는 괄교란을 엿봄.	남연랑	괄교란을 움직여 임천홍에게 시집가고 싶다는 괄교란과 시녀의 대화	남연랑과 괄교란이 의기상합하여 사혼은지로 남연랑은 임재홍과, 괄교란은 임천홍의 처가 되어 음모를 꾸밈.
〈임씨삼대록〉 24권	임재홍에게 박대받던 남연랑이 파리로 변신해 임재홍과 설소저의 침실을 엿봄.	남연랑	임재홍과 설소저의 대화, 부부간의 애정	남연랑이 분노하여 남자로 변신해 설소저의 방에 돌입하고 설소저의 정절을 훼손하는 음모를 꾸밈.
〈임씨삼대록〉 24권	괄교란의 부탁으로 남연랑이 나비로 변해 임천홍과 설소저의 침실을 엿봄.	남연랑	임천홍과 설소저의 부부간 애정	남연랑이 부부 사이를 질투하여 도술을 부려 설소저를 훔쳐와 동생 환옥에게 겁탈하게 함.
〈임씨삼대록〉 26권	남연랑이 파리로 변해 능운, 묘월, 옥선공주의 죄를 묻는 국청을 엿들음.	남연랑	능운, 묘월, 옥선공주의 악행과 죄에 대한 처결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남연랑이 설소저를 동여매고 와 남강에 던져버림.
〈소현성록〉 7권	명현공주가 소운성과 형씨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음.	명현공주	소운성이 형씨에게 명현공주를 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하는 말	명현공주가 분노하여 황제와 황후를 움직여 소운성을 벌주고 형씨를 취운정에 감금함.

〈조씨삼대록〉 27권	애황과 이씨가 소경수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벽틈으로 엿들음.	애황, 이씨	소경수가 조자염에게 이씨의 악행과 음란한 행동을 말함.	애황과 이씨가 소연수를 충동질하고 소연수가 어머니 구씨에게 소경수와 조자염을 참소함.
〈조씨삼대록〉 27권	소연수가 취음정에서 소경수 부부의 대화를 엿들음.	소연수	소경수와 조자염의 올바르고 기특한 대화	소경수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 소경수 부부를 제거하기 위해 어머니 구부인의 분노를 일으킴.
〈현몽쌍룡기〉 5권	양세의 사주를 받은 차정인이 새로 변해 옥매정으로 들어가 장막틈으로 양소지를 엿봄.	차정인	양소지가 유모와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새로 변한 차정인이 도술을 써서 양소지를 도적질하려고 함.
〈현몽쌍룡기〉 3권	양세가 아버지 양공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엿들음.	양세	양공이 혀를 차며 역자가 양씨 가문에 태어났다고 한탄하는 소리	양세가 분노하여 차정인과 강후신과 결탁해 누이 양소지의 혼인을 방해할 음모를 꾸밈.
〈현몽쌍룡기〉 7권	양세가 양공과 조성이 자신의 관상과 미래사를 말하는 것을 엿들음.	양세	양세의 관상이 나쁘고, 좋게 죽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하는 양공과 조성의 대화	양세가 양공과 조성에게 분노하여 차정인, 박수관과 공모하여 조성을 죽이고자 함.
〈현몽쌍룡기〉 8권	양세가 양공과 조성이 양소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엿들음.	양세	양소지가 화를 피해 순씨집안에 의탁해 있다는 양공과 조성의 대화	양세가 양소지를 죽이고자 차정인, 강후신과 계락을 짬.
〈성현공숙열기〉 20권	임세린이 공주와 주소저가 임세린의 행동에 대해 평하는 것을 엿들음	임세린	공주가 주소저에게 임세린이 행실이 좋지 않은 경박자라고 평가함.	임세린이 분노하여 술을 마시고 공주의 처소로 찾아가 공주를 구타하고 상처를 입힘.
〈소현성록〉 11권	소운명이 난간에서 가짜 이소저가 간인에게 편지를 주는 것을 엿봄	소운명	가짜 이소저가 성영이란 남자에게 편지를 주고 연락을 취하는 모습	소운명이 분노하여 진짜 이소저를 후원 당에 가두고 괴롭힘.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에서 옛보고 엿듣는 주체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악인형 여성 인물/ 악인형 남성 인물과 영웅호걸형 인물이다. 악인형 여성 인물/ 악인형 남성 인물의 옛보기, 옛듣기 서사는 음모라는 주요 사건을 만드는 촉매가 되고 영웅호걸형 인물의 옛보기, 옛듣기는 오해를 만드

는 촉매가 된다.

악인형 여성 인물은 남편과 연적(戀敵)인 여성 인물의 부부방을 엿보거나 엿들으며 질투심과 분노를 느끼고 그 결과 남편과 여성 인물을 없애려는 음모라는 주요 사건을 만들게 된다. <임씨삼대록>의 경우에는 옥선군주가 임창홍과 설소저의 대화와 동침을 엿보고 질투를 느껴 음모를 꾸미게 된다. 남연량은 임재홍과 소소저의 대화와 동침을 엿보다 분노하여 소소저의 정절을 훼손하는 음모를 꾸미고 또한 남연량은 임천홍과 성소저 부부의 침실을 엿보다 부부 사이를 질투하여 성소저를 잡아오는 계락을 꾸미기도 한다. <소현성록>의 명현공주는 소운성과 형씨의 대화를 엿듣고 분노하여 소운성과 형씨를 벌주는 사건을 만든다. <조씨삼대록>의 애황과 이씨는 소경수와 조자염 부부의 대화를 엿듣고 어머니 구씨에게 두 사람을 참소하는 음모를 실현한다. 악인형 여성 인물뿐만 아니라 악인형 남성 인물도 부모나 주변인의 비밀 대화를 엿듣고 음모를 꾸미기도 한다. <현몽쌍룡기>에서 엿듣기는 양세를 통해 드러난다. 양세는 아버지 양공의 혼잣말을 엿듣고, 양공과 처남인 조성이 자신을 폄하하고 누이 양소저를 칭찬하는 것을 엿들으며 질투와 분노를 느끼며 양소저를 죽이려는 음모를 여러 차례 꾸미고 주요 사건을 추동한다. 양소저를 죽이려는 양세의 음모는 양세의 엿듣기에서 촉발되는 것이다.

이처럼 악인형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의 엿듣기, 엿보기는 주인공 부부나 여성 인물을 제거하거나 고난을 가하는 음모를 만드는 촉매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영웅호걸형 인물인 <성현공숙렬기>의 임세린은 공주와 주소저가 자신을 경박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엿듣고 공주에게 고통을 가하고, <소현성록>의 소운명은 가짜 이소저의 음란한 행동을 엿보고 그 결과 진짜 이소저를 박대하고 괴롭힌다. 이것은 주체의 엿보기와 엿듣기가 부부간의 깊은 오해를 만드는 촉매로 구성된 것이다.

악인형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 그리고 영웅호걸형 인물의 엿보기, 엿듣

기는 선인형 인물들의 고난으로, 영웅호걸형 인물의 옛보기와 옛듣기는 선인형 여성 인물에게 가해지는 고난으로 확대되어 서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갈등을 심화한다. 앞서 보았던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가 혼인과 연인 되기를 통해 선인형 인물을 고난으로 이끄는 예비적 단계라면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로써 옛보기와 옛듣기는 인물에게 고난을 가하여 갈등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직접적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음모와 오해의 촉매로써 옛보기와 옛듣기는 주체의 인정 욕구를 외현화한 서사이다. 악인형 여성 인물은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남편이 연적과 함께 있는 부부방을 옛보고, 옛듣는 것이다. 악인형 남성 인물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주체의 인정 욕구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체는 불안해하며 숨어서 아버지와 주변인들의 대화를 옛듣는 것이다. 영웅호걸형 인물도 남편으로서의 인정을 기대하고 자신에 대한 아내의 평가, 행동을 옛보고, 옛듣기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음모와 오해의 촉매로써 옛듣기, 옛보기는 아내, 아들, 남편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주체의 대응 전략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지닌 주체가 행하는 필사적인 생존 방식을 구성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해결과 각성의 촉매 서사

해결과 해명의 촉매 서사는 주체가 대상이 되는 인물, 행동, 대화를 옛보거나 옛듣고 사건을 해결하거나, 오해를 풀고 자신의 잘못을 각성하는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해결과 각성의 촉매 서사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옛보기/옛듣기 상황	주체	대상	결과
〈유효공선행록〉 4권	정씨가 유홍의 사주를 받은 하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음.	정씨	유연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하인들의 대화	정씨는 편지를 써서 사실을 박상규에게 알리고 박상규가 유연을 구함.
〈소현성록〉 5권	노비 연복, 연희가 양부인이 위공자들의 음식에 독약을 타는 것을 엿봄	연복, 연희	방씨에게 매수된 양부인이 위공자들의 음식에 독약을 타는 모습	연복과 연희가 두 공자를 엿고 소부로 도망감.
〈조씨삼대록〉 29권	조유현이 수풀에 숨어서 소연수와 자객의 계락을 엿들음.	조유현	소연수가 자객 진석운과 백지호를 매수하여 소경수와 조자염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말	조유현이 진석운과 백지호를 잡아서 조부의 감옥에 가두고 후일 조자염의 신원때 쓰려고 함.
〈유효공선행록〉 12권	유홍이 유정경의 생일 잔치에서 장점으로 유연 부자를 엿봄	유홍	아버지의 생신연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유연, 유우성 부자의 모습	유홍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잘못을 회개함.
〈소현성록〉 7권	명현공주의 보모 양씨가 형씨의 창아래에 엿드려 형씨의 말과 행동을 엿봄.	양씨	형씨가 임세련에게 명현공주와 자신을 욕하지 않고 명현공주의 가련함과 양씨의 충성을 일컫는 것을 들음.	양씨가 형씨의 사람됨에 감동하여 사나운 마음을 버리고 형씨를 대접함.
〈소현성록〉 13권	김현이 아내 소수빙과 시녀 정경의 대화를 엿들음	김현	소수빙이 시녀 정경에게 자신을 죽이려한 김현의 조강지처 취씨를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말함.	김현이 소수빙의 사람됨에 탄복하며 존경함.
〈조씨삼대록〉 18권	조운현이 채교정에서 장씨와 신묘랑의 계락과 악행을 엿들음	조운현	장씨와 신묘랑이 남씨와 아들을 죽인 것과 장씨가 가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대화	운현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장씨를 잡아 치죄함.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옛보기와 옛듣기는 다른 인물의 위기를 해결하는 주요 사건의 축매로 구성되기도 하고, 주체가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엿보거나 엿듣고 사건의 전말, 자신의 오해, 잘못을 각성하는 주요 사건의 축매로 구성되기도 한다.

옛보기와 옛듣기가 해결의 축매로 구성되는 서사는 〈유효공선행록〉의 정씨가 유연을 죽이려는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유연을 구하는 경우나

〈소현성록〉의 위씨 가문의 시비인 연복과 연희가 양부인이 위공자들을 살해하려고 독약을 타는 것을 옛보고 위공자를 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조씨삼대록〉의 조유현이 소연수와 자객의 대화를 옛듣고 소경수와 조자염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도 해결의 촉매로써 옛보기와 옛듣기를 구성한 것이다.

옛보기와 옛듣기가 오해를 풀고 각성의 촉매로 구성된 서사는 악인형 인물과 영웅호걸형 인물이 옛보기와 옛듣기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서 두드러진다. 〈유효공선행록〉의 유희은 아버지의 생일연에서 장뜰으로 유연 부자를 옛보고 자신의 과오를 각성하고, 〈소현성록〉의 명현공주의 보모 양씨는 형씨를 괴롭히다가 창 아래에서 형씨의 말과 행동을 옛보게 된 후 형씨의 사람됨을 알게 되어 자신의 잘못을 각성하고 형씨를 잘 대접한다. 〈소현성록〉의 김현은 아내 소수빙의 대화를 옛듣고 소수빙의 사람됨에 탄복하고 소수빙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조씨삼대록〉의 조운현은 장씨의 악행을 옛듣게 되면서 남씨를 박대하고 괴롭히던 자신의 잘못을 한탄하고 장씨를 치죄하게 된다.

해결과 각성의 촉매 서사는 앞에서 유형화했던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에서 악인형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의 옛보기와 옛듣기가 음모와 오해라는 사건을 만들어 인물에게 고난을 가하고 갈등을 고조시켰다면 해결과 각성의 촉매는 옛보기와 옛듣기를 통해 음모를 해결하거나 오해를 풀면서 위기와 고난이 해소되고 갈등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결과 각성의 촉매로써 옛보기와 옛듣기는 주요 사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주요 사건의 갈등을 해소하여 하나의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해결의 촉매로써 구성되는 옛보기와 옛듣기는 위기에서 인물을 구해냄으로써 위기와 고난이라는 주요 사건 진행을 잠시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각성의 촉매로써 구성되는 옛보기와 옛듣기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요 사건을 종결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4) 해소와 웃음의 촉매 서사

해소와 웃음의 촉매 서사는 주체가 주인공과 상대방이 나누는 대화나 행동을 엿보거나 엿듣고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엿보거나 엿들은 것을 가족들에게 폭로함으로써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에서 해소와 웃음의 촉매 서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작품명	엿보기/엿듣기 상황	주체	대상	결과
〈유효공선행록〉 11권	부부 갈등을 겪은 우성과 이소저가 다시 만나자 주씨가 부부의 침실을 엿봄.	주씨	우성과 이소저의 부부 사이	주씨가 우성과 이소저가 정이 지극한 것을 보고 탄복하며 마음을 놓음.
〈유씨삼대록〉 6권	박세기가 추모인 순씨와 혼인한 날 서모 이부인이 찬향, 월섬, 설영소저에게 신혼망을 엿보게 함	찬향, 월섬, 설영소저	박세기와 순씨의 대화와 동침	박세기와 순씨가 첫날 밤 화락하고 동침하는 모습을 세세히 온 가족에게 알리고 온 가족이 웃음.
〈임씨삼대록〉 6권	설공이 딸과 사위에게 요사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딸과 사위의 신방을 엿봄.	설공	임창홍과 설성염의 대화와 행동	설공 부부가 딸과 사위의 은애 넘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흡족해함.
〈임씨삼대록〉 6권	서모인 열파 등이 임창홍과 설성염 부부의 방을 엿봄	열파 등	임창홍과 설성염 부부의 방	설성염이 임창홍과의 오해를 풀고 동침한 것을 태부인에게 알리자 태부인이 기뻐함.
〈소현성록〉 7권	석파가 소운성과 형씨의 처소에서 부부의 대화를 엿들음.	석파	형씨가 상소를 써서 소운성을 구한 사실과 부덕으로 소운성을 대하는 것.	석파가 태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태부인이 형씨의 사람됨을 칭찬하고 감동함.
〈소현성록〉 9권	석파가 소운명과 추녀 임씨의 처소를 엿봄.	석파	소운명이 추모인 임씨의 말과 문재를 공경하고 동침하는 것	석파가 소운명이 임씨와 동침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모든 사람들이 웃음.
〈조씨삼대록〉 2권	이소저의 내막이 궁금한 태부인이 서모인 화파에게 유현과 이소저 부부의 방을 엿보게 함.	화파	이소저가 남복하여 유현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유현의 아내가 된 사연	화파가 태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족들이 이소저의 사연을 알게 되고 유현의 능동함을 말함.

〈조씨삼대록〉 16권	태부인이 조부인, 채빙에게 박색인 장씨와 혼인한 몽현의 신흠방을 옛보게 함.	조부인, 채빙	몽현과 장씨가 남편의 덕과 아내의 본분을 이야기하며 문답하는 것.	부부의 문답을 태부인에게 아뢰자 태부인과 온 가족이 장씨의 덕과 행동을 칭찬함.
〈임씨삼대록〉 28권	열파, 매파가 임창홍의 명으로 설희광과 임월혜의 신방을 옛봄	열파, 매파	설희광이 관소저로 변신한 임월혜에게 임월혜가 돌아오기 전에는 동침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온 가족이 임월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설희광의 어리석음을 비웃음.
〈임씨삼대록〉 38권	소파, 진파가 같은 날 혼인한 계홍, 성홍, 진홍, 관홍의 신방을 옛봄	소파, 진파	첫날 밤 계홍의 열정적인 행동, 진홍과 성홍의 신중한 모습, 관홍의 도학군자다운 모습	소파와 진파가 계홍, 진홍, 성홍, 관홍의 첫날 밤 모습을 폭로하고 온 가족이 웃으며 즐거워함.
〈소현성록〉 1권	서모인 석파와 이파가 소현성과 화씨의 처소를 옛봄.	석파, 이파	소현성과 화씨의 동침과 화씨의 출산을 둘러싼 부부의 대화	석파와 이파가 임신 사실을 양부인에게 알리자 온 가족이 기뻐하고, 소현성을 놀리고 웃음.
〈소현성록〉 2권	석파, 이파가 벽틈에 엿드려 윤소저와 유학사 부부의 방을 옛봄	석파, 이파	유학사가 윤소저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던 일	윤소저 앞에서 잘못을 빌고 단정하지 못한 유학사의 말과 행동을 폭로하여 좌중이 모두 웃음.
〈현몽쌍룡기〉 5권	채빙 모녀가 조성과 양옥설 부부방을 옛봄	채빙, 화씨	조성이 양옥설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정하게 대하고 애정을 나누는 것.	채빙이 가족 모임에서 사실을 폭로하여 가족들이 우스개 소리를 나눔.
〈현몽쌍룡기〉 10권	석공 부부가 조무와 정채임 부부의 대화가 궁급하여 정공자와 석공자에게 부부의 방을 옛보게 함.	정공자, 석공자	거란 평정을 위해 떠나는 조무가 정채임과 이별하면서 무릎을 베고 손을 잡으며 연연해하는 것.	정공자가 문밖에서 놀리고, 조무와 입씨름을 하다가 두 공자가 조무와 실랑이를 벌이며 즐거워함.
〈조씨삼대록〉 5권	유현이 정씨를 찾아오자 정공이 아들 정윤기에게 부부의 방을 옛보게 함.	정윤기	부부가 서먹하게 인사를 나누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유현이 정윤기가 창밖에서 엿듣고 있는 것을 알고 창밖으로 오줌을 누자 정씨 형제들이 유현과 실랑이를 벌이고 농담하며 술을 마심.
〈조씨삼대록〉 5권	정공의 낙향으로 유현과 정씨가 이별하자 정한림 형제가 부부의 방을 옛봄.	정한림 형제	유현이 정씨의 무릎을 베고 손을 잡으며 슬피하는 것.	정한림 형제가 문밖에서 유현을 놀리자 서로 실랑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한담함.

옛보기와 옛듣기가 궁금증의 해소와 웃음을 촉발하는 서사로 구성되는 경우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주인공 부부의 침실을 옛보거나 옛듣는 형태이다. 옛보고, 옛듣는 주체는 장인, 매제, 매형, 할머니, 서조모, 서모, 고모, 누이 등이고, 대상은 부부의 침실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행동이다. 이 옛보기와 옛듣기는 주체와 대상은 유사하지만 그 결과는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주체가 부부의 침실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행동을 옛보고, 이를 공개하여 가족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가 온 가족 앞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폭로하여 웃음을 불러일으키거나, 옛보기와 옛듣기의 주체와 대상이 말다툼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옛보기와 옛듣기를 구성하는 경우는 <유효공선행록>의 주씨의 우성과 이소저 부부의 침실 옛보기와 <임씨삼대록>의 설소저 아버지 설공의 딸 부부의 신방 옛보기, 서모인 열파의 임창홍과 설성염 부부의 침실 옛보기를 들 수 있다. <소현성록>의 서모 석파는 소운성과 형씨 부부의 침실의 대화를 옛듣고 태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씨삼대록>의 서모 화파는 조유현과 이소저 부부의 침실을 옛보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태부인과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구성된다. <조씨삼대록>의 누이 조부인과 채빙은 박색인 장씨와 혼인한 조몽현의 신혼방을 옛보고 이들의 대화와 동침을 태부인과 가족들에게 알린다. 이러한 옛보기와 옛듣기는 오해로 갈등을 빚었던 부부가 어떻게 화해하는지, 추모나 박색인 아내를 신부로 맞은 아들의 첫날밤이 어찌 될지 알고 싶어하는 가족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옛보기와 옛듣기가 궁금증을 넘어서서 부부간의 은밀한 대화나 행동을 가족들 앞에서 공개하여 웃음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8) 옛보기와 옛듣기 기법에 주목한 것은 아니지만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의 대화를 여담, 희담, 한담, 농담, 유머 담화라고 명명하고 여기서

〈유씨삼대록〉의 찬향, 월섬, 설영소저의 추모 순씨와 유세기의 첫날 밤 침실 옛보기와 공개, 〈임씨삼대록〉의 열파와 매파의 설희광과 임월혜의 신흠방 옛보기와 설희광의 어리석음을 웃음거리로 삼기, 〈임씨삼대록〉의 서조모인 소파와 진파의 임부 손자들의 신흠방 옛보기와 폭로하기는 온 가족의 웃음을 촉발하는 대표적인 구성이다. 〈소현성록〉에서는 서모인 석파와 이파가 주체가 되어 소현성과 화씨의 부부 침실 옛보기, 유학사와 이소저의 침실 옛보기와 공개하기로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석파의 소운명과 추모인 임씨의 신흠방 옛보기와 이들의 동침 알리기는 온 가족의 웃음을 만드는 포인트이다. 〈현몽쌍룡기〉의 서모 화씨와 서매인 채빙의 조성과 양씨의 부부방 옛보기와 공개도 가족들의 웃음을 만드는 촉매가 된다.

또한 주체가 부부 침실을 옛보거나 옛듣다가 발각되어 주체와 대상이 실랑이를 벌이며 웃음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현몽쌍룡기〉의 정공자, 석공자의 조무와 정씨 부부 침실 옛보기는 정공자와 석공자와 조무의 실랑이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한바탕 웃음을 만들기도 한다. 더 나아가 〈조씨삼대록〉에서는 조유현의 매제 정운기가 창 아래서 조유현과 정씨의 침실을 옛보고 있는데 이를 눈치챈 조유현이 오줌을 누고 그 오줌을 맞는 정운기가 정씨 형제들과 부부 방으로 쳐들어가 조유현과 실랑이를 벌이고 웃음이 촉발되기도 한다.

발생하는 웃음의 기능과 의미를 연구한 논의들은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 『한국문화』 36, 한국문화연구,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05, 25~52쪽;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회담 연구-남성 회담문 ‘정염’과 여성 회담문 ‘상부인’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273~310쪽;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 양상과 기능」,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127~158쪽; 김문희,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유머 담화와 웃음의 성격」,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73~211쪽; 이주영, 「〈소현성록〉의 농담 기제와 그 의의」, 『개신어문연구』 32, 개신어문학회, 2010, 63~95쪽; 정혜경, 「〈현씨양옹쌍룡기〉의 서사적 힘: 웃음」,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33~63쪽.

이처럼 해소와 웃음의 축매로써 엮보기와 엮듣기는 주요 사건을 만드는 빌미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이 종결되는 부분에 첨가되거나 주요 사건과 주요 사건 사이에 들어가 긴장을 이완한다. 궁금증을 해소하는 엮보기와 엮듣기는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종결된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다. 해소의 축매로써 엮보기, 엮듣기는 주요 사건의 매듭, 종결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웃음의 축매로써 엮보기와 엮듣기는 주요 사건과 주요 사건 사이에 구성되어 서사 진행을 지연시키며 긴장을 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에서 부부의 침실을 엮보거나 엮듣기 기법이 빈번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를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임씨삼대록〉, 〈소현성록〉,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에서는 이러한 웃음의 축매로써 엮보기와 엮듣기 서사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부부의 침실을 엮보거나, 엮듣고 더 나아가 부부의 사적인 비밀을 공개하여 온 가족이 부부의 내밀한 사정을 공유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바탕 웃음으로써 가족의 단란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설 밖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구성이기도 하다. 해소와 웃음의 축매로써 엮보기와 엮듣기는 부부의 내밀한 침실의 대화와 행동을 독자도 함께 엮보고 엮듣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되는 것이다.

3. 국문장편소설의 ‘엮보기’와 ‘엮듣기’ 서사 기법의 기능과 효과

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문장편소설의 엮보기와 엮듣기 기법의 기능과 효과를 서사 구성적 측면과 독자의 독자 심리적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1) 서사 구성적 측면의 기능과 효과

(1) 서사 속도의 가감속과 구성의 다각화와 종결화

국문장편소설에서 활용되는 옛보기와 옛듣기 기법은 서사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서사 구성을 다각화하거나 종결하는 기능을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매혹과 상사의 촉매나 음모와 오해의 촉매로써 옛보기와 옛듣기는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 주요 사건을 만들게 한다.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는 악인형 인물, 영웅호걸형 인물이 이성을 엿보고 매혹되어 상사병이 나고 그 결과 이성과 혼인하거나 연인이 되는 것이다.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는 최종적으로 혼인과 연인 되기라는 주요 사건을 만드는 구심점이 되고, 이것은 주인공과 선인형 인물에 대한 음모와 계략, 오해라는 또 다른 주요 사건의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매혹과 상사의 촉매로써 옛보기는 혼인, 연인 되기라는 주요 사건을 만들고 또 다른 사건인 계략과 오해라는 주요 사건의 국면으로 서사를 다각화하는 기능을 한다.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는 악인형 인물, 영웅호걸형 인물이 다른 인물의 대화를 엿보거나 옛듣고, 음모를 만들거나 오해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악인형 인물, 영웅호걸형 인물이 선인형 인물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하는 본격적인 사건을 만들고 선인형 인물은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사의 긴장감이 고조되게 한다. 이처럼 음모와 오해를 이끄는 옛보기와 옛듣기는 서사의 진행을 보다 속도감 있게 이끌고 서사의 갈등이 최고점이 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해결과 각성의 촉매, 해소와 웃음의 촉매로써 옛보기와 옛듣기는 주요 사건을 종결하고 매듭짓기에 용이하며 서사 속도를 늦추는 기능을 한다. 해결과 각성의 촉매 서사는 옛보기나 옛듣기를 통해 음모나 계략이 탄로나거나 주요 사건이 해결되며, 오해를 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다. 특히 해결의 촉매 서사는 선인형 인물에게 닥칠 위기 중 하나를

해결하거나 지연시켜 서사 진행의 속도를 늦춘다. 각성의 촉매 서사는 인물에게 가해지는 고난을 소거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주요 사건이 종결되도록 한다.

해소와 웃음의 촉매 서사는 부부의 침실을 엿보거나 엿듣고 부부 갈등이 해소된 것을 알리며 주요 사건을 종결시킨다. 또한 엿보기와 엿듣기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공개하여 한바탕 웃음거리로 만들며 서사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즉 해소의 촉매 서사로써 엿듣기, 엿보기는 주요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종결하고, 웃음의 촉매 서사로써 엿듣기, 엿보기는 웃음과 한담을 통해 서사 진행 속도를 늦추고 팽팽하게 유지되었던 서사의 긴장감을 이완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문장편소설의 엿듣기와 엿보기 기법은 서사 구성적 측면에서 주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사 구성을 다각화하고, 서사 진행을 가속화하여 긴장감을 고조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으로 주요 사건과 사건 사이에 부부 침실 엿보기와 엿듣기 서사를 배치하여 주요 사건을 매듭짓거나 웃음을 만들어 서사 진행 속도를 감속하고 긴장이 이완되도록 한다. 이런 이유로 국문장편소설의 작가는 서사 구성의 측면에서 갈등의 점진적 고조와 해소를 효과적으로 하고 서사를 다각화하고, 한편으로 서사를 종결하기 쉽기 때문에 장편소설을 구성할 때 일정한 패턴으로 엿보기와 엿듣기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2) 복잡한 사건 구성의 용이성과 개연성 확보

국문장편소설의 엿보기와 엿듣기 기법은 장편소설 창작에서 복잡한 사건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건 구성을 용이하게 하여 서사의 개연성을 만드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곧 엿보기와 엿듣기 기법은 사건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서사의 개연성을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설은 허구적인 개연성을 기반으로 창작되고 국문장편소

설도 이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의 많은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만 하고 그럴듯한 개연적인 구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개연적인 구성만으로 장편소설의 서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문장편소설을 창작할 때 작가가 봉착하는 구성의 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사의 개연성은 인과 관계에 의한 연결, 복선에 의한 암시, 필연적인 결과⁹⁾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서사의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가의 치밀한 서사 구성 능력이 요구된다.

국문장편소설의 음모, 오해, 해결, 각성 등은 여러 사건이 인과적으로 맞물려 구성되는 주요 사건이다. 국문장편소설의 악인형 인물들의 음모는 악한 성정과 욕망, 시기, 질투, 남편의 박대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다. 또한 남성 인물의 오해는 남성 인물의 이성적이지 않고, 사려 깊지 못한 성격, 악인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 발생하는 인과적 사건이다. 이처럼 국문장편소설에서 음모와 오해는 인물들의 행동, 대화, 서술자의 설명, 인물들의 관계, 갈등을 인과적으로 쌓아올려 만든 결과이다. 또한 국문장편소설의 해결, 각성과 같은 사건도 여러 인물들의 행위, 협력, 노력, 공조 등과 여러 상황을 결합하여 개연성 있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의 많은 사건을 모두 인과 관계나 필연적인 결과로 구성할 수 없다. 이때 고안될 수 있는 것이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 기법이다. 음모, 오해, 해결, 각성이라는 주요 사건 이전에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를 배치하고 그 결과로 음모, 오해, 해결, 각성이 이어지게 구성하는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 옛듣기는 복잡한 사건 구성의 과정을 생략하고 옛보기와 옛듣기라는 사건으로 서사의 개연성을 확보하는 손쉬운 방법인 것이다.

9) 제라르 주네트, 츠베탕 토로로프, 조나단 칼러 등은 개연성의 문제를 필연성이나 그럴듯함과 관계지어 논하였다. 이들은 소설이란 허구의 산물이므로 그 허구를 독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신뢰감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신뢰감을 주는 장치가 인과 관계에 의한 연결(필연성), 복선에 의한 암시라고 보았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상, 국학자료원, 2006, 122쪽.

현실에서 타인의 비밀이나 중요한 사실을 엿보거나 엿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엿보기와 엿듣기는 분명 우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이런 우연적 사건인 엿보기와 엿듣기를 소설 속에 구성할 때는 매우 그럴 듯하고 개연성 있게 만든다. 일례로 <임씨삼대록>의 엿보기와 엿듣기가 음모라는 주요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임재홍의 처로 들어가 박대받는 남연량은 변신술을 배워 파리나 나비가 되어 이부, 곽부, 소부, 관가 등 이곳저곳을 제한없이 돌아다니며 다른 인물의 대화, 비밀, 원망, 부부의 동침, 상황 등을 엿보거나 엿듣는다. 남연량의 변신술은 엿보기와 엿듣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서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개연성이 되고 다른 악인과 연대하여 소소저와 정소저를 없애는 음모를 인과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한다. 남연량이 엿보는 장면도 인물인 남연량의 시각과 서술자의 시각이 교차¹⁰⁾되도록 하여 인물이 분노하여 음모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인과적인 개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각성이라는 주요 사건을 촉발하는 엿듣기도 비슷한 서술 양상을 보인다. <조씨삼대록>의 조운현은 남씨를 오해하여 박대하고 남씨에게 고통을 준 후 우연히 채교정에서 장씨와 신묘량의 계략과 악행을 엿듣는다. 조운현의 엿듣기 장면은 장씨와 신묘량의 대화로만 보여주기로 서술¹¹⁾된

10) 남연량이 바로 깨닫고 가만히 뒤를 좇아 한 곳에 이르니 단청으로 장식한 화려한 누각에 좋은 기와와 붉은 용마루가 웅장하여 구름 속에 솟은 듯하였다. 벽 사이에 붙어서 보니 시녀들이 이윽히 대기하고 있다가 야찬을 물리고는 원앙금침을 펴고 비단 장막을 드리운 뒤 야심함을 고하고 일시에 물러났다. 한림 임재홍이 비록 도를 닦는 군자이나 소씨의 현철한 미모와 재주에 마음이 풀리니 성인도 하주에서 구하시던 바니 이미 결혼한 데다가 조부모께서 신방에서 쌍으로 노닐기를 허락하셨고 예로써 소소저를 조강지처로 맞았으니 어찌 그 사랑이 평범하겠는가? <중략> 벽 사이에서 요녀 남연량이 소공이 딸과 사위가 화락하는 것을 몰래 살펴보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더욱 분한 마음에 숨이 막힐 듯하여 곧 소씨를 짓밟아 죽이고 싶었으나 하릴없어 계교를 생각하였다.(한길연 역주, 『임씨삼대록』 3, 소명출판, 2010, 288~289쪽)

다. 조운현은 숨죽여 장씨와 신묘랑의 대화를 다 듣고 이들의 악행, 음모, 계획을 알게 되고 분노하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각성하게 된다. 조운현의 옛듣기는 여러 사건을 복잡하게 구성하는 수고로움 없이 인물의 각성을 만드는 기법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는 복잡한 사건 구성을 생략하고 단순화하여 사건의 개연성을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문장편소설에서 반복되는 소설 기법이 된다. 이것은 장편국문소설에서만뿐만 아니라 매체를 달리하는 현대 TV 드라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복잡한 사건 구성을 생략하고 음모, 오해, 해결, 각성이라는 결과를 개연성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대 TV 드라마에서도 옛보기, 옛듣기 기법이 선호되는 것이다.

2) 독서 심리적 측면의 기능과 효과

(1) 애정과 인정 욕망의 용인과 독자의 욕망 투사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 기법은 독자의 독서 심리에도 일정한 효과를 나타낸다. 앞에서 살펴본 매혹과 상사의 촉매, 음모와 오해의 촉매로서의 옛보기와 옛듣기는 주체의 애정과 인정 욕망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11) 짐 뒤에 두어 간 작은 누각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 문뜰으로 옛보았더니 신묘랑이 장씨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신묘랑이 웃으며 말하였다. “부인의 복록이 두터워 남씨 같은 적인을 제어하고 그 아들을 죽였으니 남씨 모자의 죽음 이 연궁과 한궁에서 결판날 것입니다.” <중략> 장씨가 눈썹을 찡그리며 말하였다. <중략> 신묘랑이 웃으며 말했다. <중략> 장씨가 사례하고 나서 서로 기묘하게 웃었다. 그 간악한 모습과 요사스런 행실들을 별주어 묻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이 문답하면서 평소의 죄악을 세세하게 발설하니, 능백 운현이 분하여 기운이 막힐 듯하였다. 또 자기가 저들에게 빠져 옥 같은 숙녀를 의심하여 박절한 거동과 미친 듯한 호령으로 내쳤던 것을 생각하니 자신의 어리석음이 비할 데가 없었다. 그 모자의 불쌍한 목숨이 비명에 참사함을 생각하니 자연스레 눈물이 앞을 가렸다.(정성희 역주, 『조씨 삼대록』 3, 소명출판, 2010, 156~159쪽)

행위이다. 더 나아가 이 옛보기와 옛듣기는 주체의 애정과 인정 욕망을 허구적으로 용인하면서 독자의 욕망도 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매혹과 상사의 촉매로써 옛보기는 주체의 애정 욕망과 그 실현을 담은 서사인데 특히 국문장편소설에서 매혹과 상사의 촉매로써 옛보기는 인물의 시각에 밀착하여 서술되고 있다.

이에 꽤히 나아가 창틈으로 옛보았다. 이 깊은 밤 광교란은 촛불을 끄지도 않고 옷은 다 벗은 채 이불로 옷 같은 가슴을 반만 덮고서는 아련히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희미한 등불이 적막하고 원앙이불이 쓸쓸함을 슬퍼하여 교태로운 눈썹에는 근심이 만 가지로 맺혔고 샛별 같은 눈에 눈썹에는 구슬 같은 눈물이 샘솟아 꽃 같은 보조개를 적시니 촛불 그림자 아래 교태로운 용모가 아리따고 어여빠 진나라 시절 진주 석 섬으로 값을 헤아리던 녹주와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환옥은 한 눈에 사랑에 빠졌다.¹²⁾

위의 예문은 〈임씨삼대록〉의 악인형 인물 환옥이 누이 남연랑과 함께 성소저를 겁탈하려는 계략을 꾸미다 실패하고 우연히 광교란의 침실을 엿보고 광교란에게 매혹되는 장면이다. 광교란의 벗은 몸과 아름다운 얼굴이 환옥의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다. 먼저 광교란의 벌거벗은 육체가 묘사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슬픔을 안고 있는 광교란의 모습이 연민의 시각으로 그려진다. 교태롭고 아름다운 광교란의 자태와 모습은 모두 인물인 환옥의 내부시점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환옥은 한 눈에 사랑에 빠지고 그 방으로 달려 들어가 광교란과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연인이 된다. 환옥과 광교란의 사통은 비윤리적인 악행이지만 환옥의 옛보기가 인물의 내부시점으로 서술되어 인물이 느끼는 황홀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도 환옥의 시각에 밀착하여 그 장면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12) 서정민 역주, 『임씨삼대록』 4, 소명출판, 2010, 14쪽.

옛보기의 서술 양상은 <조씨삼대록>의 소경수의 조자염 옛보기, 양인광의 조월염 옛보기, 조봉현의 석소저 옛보기 등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된다.

독자는 매혹과 상사의 촉매로써 옛보기를 읽으면서 주체의 시각으로 이성을 바라보고 주체의 심리를 이해하게 된다. 이성을 옛보고 난 후 매료되어 상사병을 앓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일은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렵지만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는 연애와 밀애, 애정에 대한 열정, 성취라는 경험을 독자에게 선사한다.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는 이러한 경험을 용인하면서 독자가 이런 경험을 대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체의 옛보기는 주체의 애정 욕망 추구하고 실현이면서 독자도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음모와 오해의 촉매로써 옛보기와 옛듣기 역시 주체의 인정 욕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으며,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은 주체의 인정 욕구가 옛보기와 옛듣기로 표현되는 것이다. 비록 이들이 악인형 인물로 심성이 좋지 못하고, 영웅호걸형 인물로 사려 깊지 못하여 음모와 오해를 하지만 이들의 옛보기와 옛듣기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한탄하며 분노를 느끼는 주체의 내면 심리를 잘 드러낸다.

양세가 집에 돌아왔다가 조성이 왔음을 보고 뒤꼍으로 들어가 옛들었다. 요행히도 처음의 말은 듣지 못하다가 다만 자기 말을 시작하는 뒤부터는 낱낱이 듣고는 매우 분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부친이 미워하는 것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름으로만 부자지간이고 사실은 원수구나. 아버지가 먼저 천륜의 정을 끊었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다가 죽겠는가? 저 조성이 나를 죽이고 내 집의 쌓인 만금 같은 재물과 대대로 이어져 오는 논밭과 집과 노비를 다 자기의 기물로 삼고자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어리석은 부친의 마음을 부추겨 관상에 의거하여 말하면서 나를 좋게 죽지 못할 상이라고 하는구나. 조성 같은 놈이 있으면 내가 살지 못할 것이다. 세력이 서로 양립할

수 없으니 조성을 죽이고 말 것이다.” 악한 마음이 불이 일어나듯 하였다.¹³⁾

위의 예문은 <현몽쌍룡기>의 양세의 옛듣기이다. 양세는 아버지 양공이 사위 조성에게 양세가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라 하고 양세를 죽여야 하지만 부자의 정으로 차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분노하고 눈물을 흘린다. 양세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조성이 아버지를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조성을 죽이려고 결심한다. 양세가 악한 심성과 부족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양세의 옛보기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양세의 생각을 읽으면서 독자는 양세의 처지와 감정을 바라보게 된다. 독자는 이러한 주체의 옛듣기를 통해 주체의 시각과 심리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주체의 인정 욕구가 무엇이며 왜 주체가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가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혹과 상사의 촉매, 음모와 오해의 촉매로써 옛보기와 옛듣기 기법은 독자가 주체의 옛보기와 옛듣기에 몰입하여 주체의 애정과 인정 욕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는 일차적으로 주체의 애정과 인정 욕망과 그 실현을 용인하는 서사이지만 독자가 주체의 애정과 인정 욕망에 동조하고 독자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욕망을 주체에게 투사하도록 이끄는 효과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옛보기와 옛듣기 기법은 국문장편소설을 읽는 재미가 되고 독자를 소설 속으로 이끄는 흡인력이 된다.

(2) 절시(竊視)와 도청(盜聽)의 호기심과 유희성

한편으로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는 독자의 호기심과 유희적 쾌감을 촉발하기도 한다. 앞에서 유형화한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 음모

13) 김문희 역주, 『현몽쌍룡기』 2, 소명출판, 2010, 57~58쪽.

와 오해의 촉매 서사, 해결과 각성의 촉매 서사, 해소와 웃음의 촉매 서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시(竊視)와 도청(盜聽)의 호기심을 기반으로 착안된 구성이다.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의 옛보기는 옛보아서는 안 되는 이성을 엿보는 것이고, 음모와 오해의 촉매 서사, 해결과 각성의 촉매 서사의 옛보기와 옛듣기는 개인간의 은밀한 대화와 행동을 엿보거나 엿듣는 것이다. 또한 해소와 웃음의 촉매 서사는 가장 내밀한 부부의 침실을 엿보는 것이다. 이러한 옛보기와 옛듣기는 보아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금기를 어기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마는 인간의 본연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서사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옛보기와 옛듣기는 허용되지 않거나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으로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가 만들어져 있고, 독자는 소설 읽기를 통해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 절시와 도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밀한 호기심이다. 독자는 소설 속 주체의 눈과 귀를 통해 허구 속 인물의 미모, 은밀한 대화와 행동, 부부의 침실을 엿보거나 엿들으면서 절시와 도청의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바흐첸은 소설 장르를 “본질적으로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엿따하거나 엿듣는 문학”¹⁴⁾이라고 규정했다. 작가가 타인의 삶을 엿보고 엿듣는 것을 독자에게 재현하는 것이 소설 장르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는 독자가 이중적으로 옛보기와 옛듣기를 경험하도록 하는 기법이기도 하다. 소설 장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옛보기, 옛듣기의 속성과 함께 소설 속 인물을 통해 또 한 차례 옛보기와 옛듣기를 하도록 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중적인 장치를 만든 것이다.

옛보기, 옛듣기 기법은 독자의 호기심과 함께 더 나아가 독자의 유희적

14) 박민영, 「엿듣는 말, 무너지는 경계: 『위더링 하이츠』에 그려진 엿듣기의 역할」, 『영미문학연구』 30, 영미문학연구회, 2016, 77쪽.

쾌감을 만족시키기도 한다. 특히 국문장편소설에서 많은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는 해소와 웃음의 축재로써 엿보기와 엿듣기가 이러한 효과를 잘 드러낸다. 해소와 웃음의 축재로써 엿보기와 엿듣기는 부부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화를 엿보고 엿듣는 것이다. 서사의 논리상 주체가 부부의 침실을 엿보는 이유는 심한 갈등을 겪은 후 다시 재회한 부부가 동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박색인 아내를 맞은 새신랑이 첫날 밤에 아내와 별 문제가 없는가를 살피고 이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부의 내밀한 말과 동참 장면을 온 가족이 바라보고 즐기고자 하는 유희적 태도가 있다. 부부의 침실을 엿보고 엿듣는 주체는 한 두명이지만 그 내용을 온 가족에게 공개함으로써 온 가족이 부부 침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절시와 도청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즐기는 것이다. 이것은 부부의 대화와 행동, 동참과 같은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을 모두가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관음증적인 쾌감을 맛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유희적 놀이와 그 속에서 즐기는 관음증적 쾌감을 부정적으로 그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엿보기와 엿듣기가 가문의 조화와 화합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일로 그려지면서 독자도 이 유희적 놀이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게 된다. 주체가 자신이 엿보고 엿들은 것을 말하고 다수가 그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즐기는 관음증적인 쾌감 속에 독자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자도 주체의 눈과 귀를 통해 부부의 내밀한 침실, 첫날 밤 부부의 동참을 엿보고 엿들으며 죄책감 없이 비밀을 알게 되고 즐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독서 심리적 측면에서 국문장편소설의 엿보기와 엿듣기는 독자가 가진 절시와 도청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유희적 쾌감을 만끽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문장편소설을 읽으면서 독자가 얻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4. 맺음말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는 주요 사건의 앞과 뒤에 놓여져 주요 사건을 지지하고 보조하는 디딤돌 같은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문장편소설에서 옛보기와 옛듣기 기법이 활용되는데 그 이유는 작가가 서사를 만들 때, 독자가 소설을 읽을 때 일정한 기능과 효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보기와 옛듣기 기법은 서사 구성적 측면에서 서사 진행 속도를 가속하거나 감속하기 용이하며, 서사 구성을 다각화하고 서사를 종결화한다. 더불어 장편소설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사건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잡한 사건 구성을 생략하고 개연성을 확보하기 쉽게 한다. 독자의 독서 심리적 측면에서도 옛보기와 옛듣기는 주체의 애정과 인정 욕망을 허구적으로 용인하면서 독자의 욕망도 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독자가 주체의 눈과 귀를 통해 대상을 옛보거나 옛들으면서 절시(竊視)와 도청(盜聽)의 호기심을 해소하고 유희적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독자의 가독성을 높게 된다. 이런 효과와 기능으로 인해 국문장편소설에서 옛보기와 옛듣기는 중요한 서사 기법이 되었고 작가들도 비슷한 패턴의 서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고전소설에서 옛보기는 <이생규장전>의 이생의 최씨녀 옛보기, <주생전>의 주생의 선화 옛보기, <운영전>의 운영의 이생 옛보기와 같은 대목에서 매혹과 상사의 촉매 서사로 활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옛보기와 옛듣기가 본격적이면서도 다양한 서사 기법으로 패턴화되는 것은 국문장편소설에서부터이다.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 기법은 복잡다단한 장편소설의 창작에서 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법이면서도 국문장편소설의 윤리적인 주제나 의미 이면에서 인간의 본연적 욕망에 대한 응시와 그 해소를 독자가 경험하고 소설 읽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서사 기법이기도 한 것이다.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 기법이 현대소설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지만 현대 TV 드라마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된다. 특히 아침, 저녁 시간대에 방영되는 일일 연속극에서는 국문장편소설의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 기법이 유사하게 활용된다. 일일 연속극에서는 음모와 오해의 축매 그리고 해결과 각성의 축매로써 옛보기와 옛듣기 기법의 활용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일일 연속극이 국문장편소설에서부터 고안된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 기법의 전통을 따르고 서사 구성적 측면에서 옛보기와 옛듣기 서사 기법의 이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동 편, 〈유효공선행록〉,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5, 아세아문화사, 1982, 3~242쪽.
- 김기동 편, 〈유효공선행록〉,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6, 아세아문화사, 1982, 237~481쪽.
- 김기동 편, 〈성현공숙렬기〉, 『한국고전소설총서』 1, 태학사, 1983, 1~569쪽.
- 김기동 편, 〈성현공숙렬기〉, 『한국고전소설총서』 2, 태학사, 1983, 1~507쪽.
- 김기동 편, 〈성현공숙렬기〉, 『한국고전소설총서』 3, 태학사, 1983, 1~443쪽.
- 김문희 역주, 『현몽쌍룡기』 1, 소명출판, 2010, 20~574쪽.
- 김문희 역주, 『현몽쌍룡기』 2, 소명출판, 2010, 12~504쪽.
- 김문희·조용호·장시광 역주, 『현몽쌍룡기』 3, 소명출판, 2010, 12~152쪽.
- 김문희 역주, 『조씨삼대록』 1, 소명출판, 2010, 20~660쪽.
- 김문희·조용호 역주, 『조씨삼대록』 2, 소명출판, 2010, 14~680쪽.
- 정선희 역주, 『조씨삼대록』 3, 소명출판, 2010, 14~686쪽.
- 진진아 역주, 『조씨삼대록』 4, 소명출판, 2010, 14~712쪽.
- 허순우·장시광 역주, 『조씨삼대록』 5, 소명출판, 2010, 14~771쪽.
- 김지영 역주, 『임씨삼대록』 1, 소명출판, 2010, 18~474쪽.
- 최수현 역주, 『임씨삼대록』 2, 소명출판, 2010, 12~448쪽.
- 한길연 역주, 『임씨삼대록』 3, 소명출판, 2010, 12~450쪽.
- 서정민 역주, 『임씨삼대록』 4, 소명출판, 2010, 12~412쪽.
- 정언학·조혜란 역주, 『임씨삼대록』 5, 소명출판, 2010, 12~404쪽.
- 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1, 소명출판, 2010, 24~567쪽.
- 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2, 소명출판, 2010, 12~458쪽.
- 최수현·허순우 역주, 『소현성록』 3, 소명출판, 2010, 12~649쪽.
- 최수현·허순우·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4, 소명출판, 2010, 12~566쪽.
- 한길연 역주, 『유씨삼대록』 1, 소명출판, 2010, 18~726쪽.
- 한길연 역주, 『유씨삼대록』 2, 소명출판, 2010, 12~547쪽.
- 김지영 역주, 『유씨삼대록』 3, 소명출판, 2010, 12~484쪽.
- 한길연·정언학·김지영, 『유씨삼대록』 4, 소명출판, 2010, 12~420쪽.
-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 양상과 기능」,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127~158쪽.

- 김문희,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유머 담화와 웃음의 성격」,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73~211쪽.
- 김준희, 「성(性) 소화(笑話)에 나타난 ‘옛보기’와 ‘옛듣기’-『어면순』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6,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134~158쪽.
- 김현주, 「‘옛보는 시선’과 재현윤리의 문제-〈단오풍정〉과 판소리 사설의 상관성을 통한 해석-」, 『시학과 언어학』 22, 시학과언어학회, 2012, 153~173쪽.
- 김현화, 「〈서재야회록〉의 분위기 구현 양상과 문예적 특질」, 『반교어문학연구』 36, 반교어문학학회, 2014, 267~291쪽.
- 박민영, 「옛듣는 말, 무너지는 경계: 『위더링 하이츠』에 그려진 옛듣기의 역할」, 『영미문학연구』 30, 영미문학연구회, 2016, 77쪽.
- 박일용,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5~35쪽.
- S.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 지성사, 1994, 11~228쪽.
- S.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17~323쪽.
- 이주영, 「〈소현성록〉의 농담 기제와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 32, 개신어문학회, 2010, 63~95쪽.
- 정혜경, 「〈현씨양옹쌍린기〉의 서사적 힘: 웃음」,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33~63쪽.
- F.슈탄젤, 김정신 역, 『소설의 이론』, 탑출판사, 1985, 13~346쪽.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상, 국학자료원, 2006, 12~896
-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 『한국문화』 36, 한국문화연구,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05, 25~52쪽.
-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회담 연구-남성 회담꾼 ‘정엄’과 여성 회담꾼 ‘상부인’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273~310쪽.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6, 11~484쪽.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technique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in Korean long piece novel

Kim, Mun-he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discuss function and effects of the narrative technique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in Korean long piece novel. In order to facilitate the study, the aspects of narrative, function and effects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in *Sohyunseongrok*, *Youhyogon-gseonhengrok*, *Youssisamdaerok*, *Hyunmongssangyongki*, *Jossisamdaerok*, *Seonghyungongsukyeolki*, *Imssisamdaerok* are discussed. Those novels belongs to a subtype of Korean Long piece novel, Samdaerok long piece novel. First, the narrative aspects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in Korean long piece novel are divided into catalyst narrative of captivation and lovesick, catalyst narrative of conspiracy and misunderstanding, catalyst narrative of settlement and disillusion and catalyst narrative of relief and laughter in respect of situation, subject, object and its result. Furthermore, their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The narrative technique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in Korean long piece novel accelerates or decelerates the rate of narrative progression in terms of narrative elements. It also diversifies narrative elements and terminates narrative. Moreover, it secures the function of probabilities simplifying the complicated framework of events in the long piece novel. The narrative technique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is able to illuminate reader’s desire allowing main agent’s desire of affection and acknowledgement in terms of bibliopsychology. Readers can relieve the curiosity of ‘peeping’ and ‘eavesdropping’ and feel amusing pleasure through main agent’s eyes and ears. Due to the function and effects mentioned above, ‘peeping’ and ‘eavesdropping’ have been used consistently in Korean long piece novel.

Key Words

Korean long piece novel, peeping, eavesdropping, catalyst narrative, acceleration, deceleration, diversification, termination, probability, desire illumination, curiosity, amusement

논문투고일: 2023.10.19.

심사완료일: 2023.11.04.

게재확정일: 2023.11.04.